

오키나와 ‘집단지결’을 둘러싼 일본 본토(인)의 교착된 시선*

손 지 연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부교수)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일본 본토인, 오키나와인 모두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집단지결’을 다룬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아마시타 이쿠오, 사키 류조, 소노 아야코 등 본토 출신 작가의 작품에 주목하여 그것이 오키나와 출신 작가의 표현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대비하여 살펴보고, 일본 본토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오에 겐자부로와, 같은 본토 출신이지만 그와 극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극우 성향의 소노 아야코의 ‘집단지결’ 관련 르포르타주 및 ‘오키나와 집단지결 재판’ 경과 등을 참고로 하여 ‘집단지결’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본토인의 인식에 심층적으로 다가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소노 아야코의 소설에는 부재하고 오키나와 출신 작가 및 아마시타 이쿠오의 소설에는 등장하는 일본군, 오키나와 주민과 같은 시공간에 분명히 함께 했을 ‘조선인 군부’, ‘조선인’들의 존재와 그들의 부재가 의미하는 바를 지적하고, ‘집단지결’로 상징되는 전후 오키나와 문제를 오로지 군의 명령 여부, 가해와 피해의 틀 안에 가둬 버리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낸 우파의 (무)논리를 비판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오키나와, 집단지결, 소노 아야코, 오에 겐자부로, 아마시타 이쿠오, 사키 류조

* 이 논문은 2017년도 경희대학교 교내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음.

1. 서론

일본 본토와의 차별, 오키나와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은 1945년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에 발발한 일본 유일의 지상전 ‘오키나와전투(沖縄戦)’이며, 전시의 비극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은 ‘집단지결(集團自決)’이라는 사태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철의 폭풍’으로 비유될 만큼 격렬했으며, 군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컸던 탓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후 오키나와에 있어 전전과 구분되는 전후(적) 사유, 혹은 본토와 구분되는 오키나와(적) 사유의 출발은 모두 이 오키나와전투, 특히 ‘집단지결’이라는 비극적 체험으로부터 촉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전투를 묘사한 전기(戰記)라든가 히메유리(姫百合), 철혈군황대(鉄血勤皇隊), 집단자결 등의 체험과 증언을 담은 기록물이 상당한 분량으로 축적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집단지결’을 테마로 한 소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소설 장르로는,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의 『신의 섬(神島)』(『新潮』1968년 5月号), 소노 아야코(曾野綾子)의 『잘려나간 시간(切りとられた時間)』(中央公論社, 1971), 「무위(撫慰)」(『新潮』1972년 8月号), 「새벽이 오기 전에(夜の明ける前に)」(『小説宝石』1972년 1月号), 야마시타 이쿠오(山下郁夫)의 「도카시키섬(渡嘉敷島)」(『作家』1968년 9月号), 사키 류조(佐木隆三)의 「합동위령제(合同慰靈祭)」(『文藝』1970년 6月号), 오시로 사다토시(大城貞俊)의 『아이고 오키나와(六月二十三日 アイエナー沖縄)』(インパクト出版会, 2018) 정도로 보인다. 이들 몇 편 안 되는 ‘집단지결’을 테마로 한 소설은 오시로 사다토시 작품을 제외하고 모두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간행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이 무렵은 오키나와 문제, 특히 ‘집단지결’을 둘러싼 책임 문제(군의 강제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주의를 요하는 오에 겐자부로와 소노 아야코의 르포르타주 간행 시기와도 겹쳐진다.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집단지결’ 관련 소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점을 문제제기 하면서 오시로 다쓰히로의 『신의 섬』을 다룬 바 있다. 하나는, 『신의

섬』을 오키나와인의 자기성찰적 서사로 파악하여 ‘가해’와 ‘피해’ 양쪽에 걸친 오키나와의 경제적 사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 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 4·3항쟁의 집단학살이라는 금기의 기억을 테마로 한 현기영의 『순이 삼촌』과 비교분석한 것이다.¹⁾ 『신의 섬』과 『순이 삼촌』은 유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기억투쟁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테면 오시로가 곧 다가올 ‘조국 복귀(祖国復歸)’를 의식한 듯 본토의 가해 책임과 오키나와의 내부 성찰을 동시에 촉구해간 반면, 현기영은 반공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무차별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극심한 패배주의와 열패감(레드콤플렉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 간 것이 그러하다. 이를 통해 ‘집단지결’을 둘러싼 오키나와 내부의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 제주 4·3과 다른 오키나와 특유의 사유와 성찰의 지평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들 작품은 어디까지나 오키나와, 오키나와인의 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집단지결’에 대한 본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분석 텍스트로 삼았던 『신의 섬』에 등장하는 본토 출신 인물의 면면은 ‘집단지결’을 직접 경험한 오키나와인의 다층적이고 세밀한 묘사에 비해 추상적이고 일면적(스테레오타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 본토인의 내면이라기보다 본토를 향한 원망과 기대감이 투영된 작가 자신 혹은 오키나와인의 또 다른 내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작가 자신은 물론 본토인, 오키나와인 모두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집단지결’을 다룬 소설 가운데 본토 출신 작가의 작품에 주목하여 그것이 오키나와 출신 작가의 표현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대비하여 살펴보고, 둘째, 일본 본토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오에 겐자부로와, 같은 본토 출신이

1) 「전후 오키나와(인)의 성찰적 자기서사 『신의 섬』: ‘오키나와전투’를 사유하는 방식」(『한림일본학』 27, 2015, pp.211-234), 「오키나와전투와 제주 4·3사건을 둘러싼 기억투쟁: 오시로 다쓰히로 『신의 섬』과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중심으로」(『비교문화』 41, 2015, pp.7-32)

2) 『신의 섬』을 통해 ‘집단지결’의 증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위의 두 편의 논문과 심정명의 「누구의 경험으로서 들을 것인가: ‘집단지결’과 증언」(『인문학연구』 54, 2017, pp.279-303)이 있다.

지만 그와 극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극우 성향의 소노 아야코의 ‘집단 자결’ 관련 르포르타주 및 ‘오키나와 집단자결 재판’ 경과 등을 참고로 하여 ‘집단자결’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본토인의 인식에 심층적으로 다가가 보고자 한다.

II. 본토 작가가 그리는 ‘집단자결’

— 「도카시키섬」·「합동위령제」·『잘려나간 시간』

텍스트 분석에 앞서 그간 집단자결이 어떠한 맥락에서 쟁점화 되어 왔는지, 또 관련 소설은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간략하게 언급해 두자. 우선 ‘집단자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오키나와타임스(沖繩タイムス)』에서 간행된 『철의 폭풍(鐵の暴風)』(1950)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래 군이 패배를 책임지기 위해 행하는 ‘옥쇄(玉碎)’ ‘자결’ ‘자폭’ 등의 용어가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민간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특수한 상황을 표현하려는 오타료하쿠(太田良博)의 의도에서였다. 이후 ‘집단자결’이 군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해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키나와 주민의 희생과 자발성을 강조한 ‘군민일체의 전투협력’ ‘조국방위의 순국정신’과 같은 전쟁 미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전몰자 유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한 ‘원호법(戰傷病者戰沒者遺族等援護法)’의 시행 등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군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주민의 자발에 의한 것인지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집단자결이 공적 담론으로 부상하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다. 1982년 역사 교과서에서 ‘오키나와 주민학살’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에서 시작되어 80년대 후반부터 ‘집단자결’인가, ‘주민학살인가’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새삼 언급할 것도 없이 우파를 포함한 일본 본토의 보수 내셔널리스트들은 집단자결이 스스로 선택한 ‘자살’이었다고 주장하고, 오키나와 민중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측은 일본군에 의한 ‘강제사’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양쪽 모두 ‘집단자결’에 이르는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한계를 노정한다.³⁾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어디까지나 ‘일본군 가해자 vs. 오키나와인 피해

자'의 구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집단지결에 이르는 과정은 '오키나와 vs. 일본', '가해 vs. 피해', '자발 vs. 강제'라는 이항대립 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정황들이 어둡게 맞물려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보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인식의 틀이 갖춰지는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하야시 후미히로(林博史),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야카비 오사무(屋嘉比収), 강성현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⁴⁾

지금부터 다룰 '집단지결'을 테마로 한 소설들은 모두 1970년을 전후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집단지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에 해당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무렵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가 구체화되면서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시기보다 고조되었다는 것이다. '집단지결' 문제에 누구보다 먼저 관심을 갖고 이를 본격적으로 소설화한 것은 오키나와 출신 작가 오시로 다쓰히로라고 할 수 있다. '집단지결' 문제를 소설 전면에 배치한 『신의 섬』은 오키나와 출신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중층적이고 복잡한 사고로 충만하다. 무엇보다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본토인들에게만 묻고 있지 않고 오키나와 내부, 즉 '집단지결'을 명하고 정작 자신은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캐묻는 점은 이 소설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선을 오키나와에서 본토 쪽으로 옮겨보면, 본토인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들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본토 출신 작가의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에 관해서는 강성현의 「'죽음'으로의 동원과 이에 대한 저항 가능성: 오키나와 '집단지결'의 사례를 중심으로」(정근식·주은우·김백영 편저, 『경계의 섬, 오키나와』, 논형, 2008)에 자세하다.

4) 차례로, 『오키나와전투와 민중(沖繩戦と民衆)』(大月書店, 2001), 『전장의 기억(戦場の記憶)』(日本経済評論社, 1995), 『오키나와전투, 미군 점령사를 다시 배운다: 기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沖繩戦, 米軍占領史を学びなおす: 記憶をいかに継承するか)』(世織書房, 2001), 강성현 위의 글을 들 수 있다.

1. 「도카시킴」·「합동위령제」

우선 살피볼 작품은 아마시타 이쿠오의 「도카시킴」이다. 작가 아마시타 이쿠오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도카시킴」이 게재된 『작가(作家)』를 비롯한 『탑(塔)』, 『규슈인(九州人)』 등의 잡지에 여러 편의 단편을 발표한 후쿠오카현(福岡県) 출신이라는 것 정도를 알아낼 수 있었다.⁵⁾ 1951년 8월호 『문예수도(文芸首都)』의 작가 소개란에 따르면, 미쓰이(三井) 광산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1960년 3월부터 9월에 걸쳐 전후 최대의 노동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미이케 쟁의(三池爭議)에 참여한 사실도 발견된다. 광산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키나와전투의 폭력적 사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리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⁶⁾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것은 본토 출신이지만 ‘집단지결’이라는 비극을 피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피해 당사자인 오키나와인의 시점에서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으며, 황민사관으로 덧칠된 ‘옥쇄(玉碎)’라는 표현대신 ‘집단지결’이라는 용어를 내세움으로써 오키나와전투에 대한 문제의식을 선명히 하고 있다. 물론 ‘집단지결’이라는 용어의 선택에 있어,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의미로 발신하느냐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아마시타 이쿠오의 포지션은 ‘군의 명령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라는 점을 철저히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그것과 대극점에 자리한다. ‘집단지결’이 ‘군의 명령에 의한 강요된 선택’ 혹은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이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집단지결’이라는 비극이 발생한 이후 살아남은, 남겨진 가족들이 처해진 상황을 작가는 매우 공들여 묘사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1968년 같은 해에 나란히 발표된 오시로 다쓰히로가 ‘집단지결’ 문제를 전후 20여 년이 흐른 ‘기억’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아마시타는 ‘집단지결’이라는 사태

5) 1916년 후쿠오카현 출생. 주오대(中央大) 법학과 졸업. 주요 작품으로는, 「우기(雨期)」(『文芸首都』, 1942), 「반혁명(半革命)」(『作家』, 1951), 「족쇄(足枷)」(『作家』, 1954), 「시라누이(不知火)」(『탑』, 1960) 등의 단편이 있다.

6) 『文芸首都』, 文芸首都社, 1951.8, p.67.

가 발생한 직후의 현재적인 문제로 다루고자 한 점에서 두 작품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소설의 타이틀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두 작가의 차이가 엿보인다. 요컨대 도카시키섬은 자마미(座間見), 게루마(慶留間) 섬과 함께 ‘집단지결’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도카시키섬에서만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아마시타는 ‘도카시키섬’이라는 소설의 타이틀에서부터 ‘집단지결’을 강하게 상기시키는 (르포 형식에 가까운) 반면, 오시로는 실제 ‘도카시키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가미시마(神島)’라는 가공의 섬으로 에둘러 표현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소설(픽션)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도카시키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주인공 이하 이쿠에(伊波生榮)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온나가와하라(恩納河原)에 집결하여 ‘집단지결’을 결행하기로 한다. 같은 장소의 산 정상에서는 미군의 총포 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아내 미쓰(美津)는 ‘집단지결’이 아닌, 미군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다. 이쿠에도 산 정상에 있는 미군 진지 쪽으로 몸을 돌려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린 딸 에이코(栄子, 6세)와 젓먹이 조카 기쿠코(菊子)를 이끌고 피난동굴에서 피난생활이 시작된다.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장’=‘자결장’에서의 고비는 넘겼지만, 이번엔 식량부족으로 또 다른 죽음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묘사되고 있다. 어린 딸이 먹다만 고구마를 동냥하는 조선인 군부, 그런 그를 가엽게 여겨 먹다만 고구마를 건네주는 어린 딸, 그러나 그것조차 받아 먹을 기운이 없어 딸 앞에서 쓰러져 버린 조선인 군부,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을 걸 알면서도 조선인 군부를 매정하게 내쫓아 버리는 이쿠에. 이쿠에는 온나가와하라에서 마을 주민 모두가 집단자결한 날, 틀림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여동생 레이코(れい子)가 살아있다는 소식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턱없이 모자란 식량이 여동생의 입까지 더해지게 되면 남은 세 사람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피난처에서 어린 딸이 울음을 터트리자 미군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온나가와하라에 버리고 왔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아내 미쓰가 빈 젓을 물려가며 죽음 직전까지 엄마 잃은 젓먹이 조카를 지켜낸 장면을 제외하고는 참혹한 전화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소설 전체를 지배한다. 그런 가운데 요소요소 오키나와전투에서 우군이어야 할 일본군이 오

키나와 주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살해를 일삼고 여성(그것도 임신한 여성)을 윤간하는 장면이라든가, ‘집단지결’의 명령 주체가 일본군이라는 점 또한 거듭해서 묘사하고 있다. 몇몇 장면만 인용해 보도록 하자.

온나가와하라에서 이타쿠라 대대장의 명령으로 비전투원인 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자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 순간, 레이코는 구니요시 소위를 만나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었을 터다. 구니요시 소위가 죽지 말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 [...] 뜻하지 않게 자결 명령이 대대장으로부터 내려졌던 것이다. 방위대로부터 건네받은 수류탄 32발과 여기에 20발을 나눠 받고는 온나가와하라로 걸집했다. 촌장은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하고는 웃으며 죽으라고 했다. 아이들은 비가 내려 수량이 풍부해진 계곡에서 얼굴을 씻고, 죽음을 앞둔 것도 모르고 죽기 직전까지 뛰어놀았다. 부녀자들은 머리를 빗으며 모습을 단정히 하고, 친척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다. (『도카시킴』, p.62, 한국어 역 및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 이하 같음)

“도민에게 죽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까? 우리도 같은 일본 국민입니다. 총후(銃後)의 국민입니다. 싸우라고 하면 우리들도 싸울 겁니다.”

“대대장은 도민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민은 3월 28일, 온나가와하라에서 전원이 죽었다고 믿고 있다. 자결 명령을 내렸으니,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죽여주세요. 자, 아이도 당신이 죽여주세요. 우리들은 자결 명령 위반자이니. 비(非)국민입니다. 군에게 협력하지 않겠소.”(『도카시킴』, p.68)

첫 번째 인용문은, ‘집단지결’의 명령 체계가 일본군 대대장으로부터 촌장을 거쳐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구조, ‘집단지결’을 천황을 위한 신성한 죽음 ‘육쇄’로 정당화해 간 모습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집단지결’을 완수하지 못한 주민을 방공호에서 내쫓고 식량 배급을 거절하자, 이 쿠에는 스스로를 “자결 명령 위반자” “비국민”으로 호명하며,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일본군이 주민의 희생을 통해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오키나와(인)는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폭로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마시타 이쿠오의 ‘집단지결’에 이르는 과정과 그 이

후의 상황 묘사가 앞서의 오키나와 출신 오시로 다쓰히로의 그것과 미묘하게 변별되며, 우파 계열의 소노 아야코의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본토 출신 작가 사키 류조의 「합동위령제」의 경우도 본토인의 입장에서 오키나와의 집단지결을 상대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1970년 4월 28일 '합동위령제'라는 기념일을 계기로 드러나는 오키나와와 본토의 미묘한 입장의 차이, 오키나와 내부의 온도차, 본토인의 위선까지 정확하게 포착하여 폭로한다. 논픽션 작가로 알려진 사키 류조의 이력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출생하고(1937년 함경북도), 히로시마에서 원폭 목격 및 학창시절을 보내고, 오키나와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등 그야말로 전시-전후를 관통하는 격동의 역사와 장소를 경험하고 있는 점이다. 그의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은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시기의 오키나와는 본토로의 복귀-반환을 앞두고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사키 류조는 1972년 1월, 오키나와반환협정비준저지투쟁 오키나와 총파업(1971.11.17)의 주도자로 의심 받아 류큐경찰에 구류되기도 했으니⁷⁾ 「합동위령제」는 그야말로 작가의 실제 체험에 기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은 오키나와전투 당시 집단지결이 발생한 나카우라섬(中浦島)이라는 가공(架空)의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축은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1970년 4월 27일과 28일이다. 이곳 섬에서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도쿄의 전기회사로 '집단취직'이 되어 이사를 앞둔 소년이 화자로 등장한다. 소설의 첫 장면은 도쿄로의 이사 준비를 위해 어머니와 몇몇 친척들과 함께 나하의 숙소 댁에서 1박을 하면서 장을 보고 다음 날 나카우라섬으로 향하기 위해 정박 중인 배 안에서 시작된다. 그 배는 출항하기로 한 시간을 53분이나 지체하고, 불시검문까지 있는 후 겨우 출발한다. 그 이유는 매년 4월 28일, '집단지결'이 있었던 나카우라섬에서 개최되는 합동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해 당시 섬 수비대장이던 사와무라(沢村) 대위가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섬에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에 사와무라 대위가 출항을 망설였던 탓이다. 불시검문을 위해 정박해 있던 배 트랩에는 나카우라섬 향우회 청년들에 의해 "학살을 용서하지 않겠다! 사와무라 구 대위의

7) 12일간 구류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다.

위령제 참가를 실력저지하자!”(「합동위령제」, p.89)라는 문구가 내걸리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용서하지 않겠다”(「합동위령제」, p.91)라는 청년들의 거센 함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문기자, 방송관계자 할 것 없이 배에서 내려 취재 경쟁을 벌였다. 결국 사와무라 대위는 합동위령제 참석을 단념하고 구 수비대원들과 유족들만 태운 채 배는 나카우라섬을 향하게 된다. 이어서 배가 우키시로섬(浮城島)을 통과할 무렵 선내 스피커를 통해 군함 행진곡과 구 수비대원들의 「바다에 가면(海行かば)」이라는 군국주의를 상기시키는 군가 합창 소리와 함께 소년의 어머니가 심하게 구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나하항에서부터 사와무라 대위의 위령제 참가를 저지하는 청년들의 거센 항의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 역시 향우회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 저항감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사와무라 대위를 섬에 초청한 섬 촌장이나 선내 방송을 통해 위령제를 안내하며 행사를 주도해 간 교장은 섬 향우회 청년들과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토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내부의 분열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려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섬 안에서는 사와무라 대위가 도착하면 온전히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는 간키치(寒吉) 할아버지를 비롯해 ‘옥쇄’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 이야기가 펼쳐진다. 섬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간키치 할아버지는 오키나와전투 당시 ‘옥쇄’를 결행한 경험이 있다. 이는 간키치 할아버지만이 아니다. 당시 15살, 12살이던 ‘나’의 어머니와 이소오(磯夫) 삼촌 역시 ‘옥쇄’를 결행하였으나 불발되는 바람에 살아남았다. 문제는 25년이 지난 현재에도 섬 주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음 인용문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집단지결’에 대한 언급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섬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위령제 공양물을 야스오(康男)에게 올리는 건 옳지 않아.”

“무슨 의미죠? 할아버지.”

“무슨 의미라니, 그거야 야스오는 너도 알다시피……”

“옥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양 따위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소오 삼촌이 쓰루지로(鶴次郎) 할아버지의 몇 배나 더 큰 소리로 소

리를 지르며 밥상을 두들기는 바람에 가다랑어 회가 접시에서 튕겨져 나가 락교가 담긴 종지에 들러붙었다.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나……”

“옥쇄, 옥쇄, 옥쇄가 그렇게 훌륭한 일인가요? 그 때 죽지 못했던 우리들이 나쁘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이소오 씨, 쓰루지로(鶴次郎) 할아버님이 말씀하려던 것은 아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잠자코 계세요. 나카우라(中浦) 출신도 아닌 주제에 뭘 안다고 끼어드는 겁니까?”

이소오 삼촌은 중재에 나서려던 나카자토(仲里) 선생을 호통 치며 금방이라도 한 대 칠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15세였으니 그 때 이소오 삼촌은 12살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목에 난 상처는 그 날 생긴 게 틀림없다.

“아무리 기다려도 폭발하지 않았어. 몇 번을 바위에 대고 쳐봐도 불을 붙여 대어 보아도, 폭발하지 않았대구. 그래서 수류탄을 포기하고, 그 다음은……”(「합동위령제」, pp.96-97)

‘나’의 아버지 야스오의 제단에 위령제 때 올렸던 공양물을 올리려 하자 이를 말리는 할아버지와 삼촌 간에 격한 언쟁이 오고간다. 할아버지 입장에 서는 단순 감기로 사망한 ‘나’의 아버지와 ‘옥쇄’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신성한) ‘죽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죽음’으로 치부하는 것이 못내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리고 둘의 언쟁을 중재하려는 나카자토 선생에게도 이소오 삼촌의 비난이 쏟아진다. 이 ‘옥쇄’를 둘러싼 대화 장면에서 세대 간의 경험의 차이만이 아니라 ‘옥쇄’를 결행하여 죽음에 이른 자와 (불발탄 등으로 실패하여) 살아남은 자 간의 차이, 더 나아가 전쟁 이후 ‘옥쇄’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등 ‘집단지결’에 대한 오키나와 내부의 미묘하고도 메울 수 없는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할아버지는 학도대, 의용군, 집단자결자 등의 ‘희생’을 부각시켜 ‘순국’으로 미화해 간 동시대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인물이며, 이소오 삼촌은 그 반대 편 입장에 선 인물에 다름 아니다.⁸⁾

8) 이에 관한 논의는 오시로 마사야스(大城將保)의 「오키나와전의 진실을 둘러싸고: 황국사관과 민중사관의 확립(沖繩戦の真実をめぐって: 皇国史観と民衆史観の確執)」(『争点・沖繩戦の記憶』, 社會評論社, 2002, p.26)을 참조 바람. 오키

다른 한편으로는, 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해 섬에 들어온 구 수비대원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섬 주민들과 이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모여든 신문기자, 방송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인다.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에 둘러싸여 이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구 수비대원의 발언 내용은, ‘집단지결’은 군(사와무라 대위)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자결”(「합동위령제」, p.99)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곧 있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비롯해 본토와 오키나와의 “새로운 교류”(「합동위령제」, p.99)가 점차 활발해 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합동위령제」는 어디까지나 픽션이지만 1970년 당시의 본토와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의 관계까지 시야에 넣은 르포르타주에 가까운 소설임을 알 수 있다. 오에 겐자부로는 르포르타주 『오키나와 노트(沖縄ノート)』에서 특유의 성찰적 시야로 「합동위령제」의 배경이 되는 1970년을 전후한 시기를 이렇게 묘사한다. 오키나와의 본토 ‘반환’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조인하고 오키나와를 버린 정치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의 ‘국장(國葬)’이 너무도 성대하게 치러지고 텔레비전에는 그에 관한 거짓 뉴스들로 넘쳐난다. 오사카 만국박람회(1970.3.14.~9.13) 개최식에 참석한 일본 ‘지도자’들은 ‘오키나와 문제는 종결되었다’고 안도하며, 함께 초대받은 ‘선택된 민중’ 대부분도 ‘지도자’를 따라 ‘오키나와 문제는 종결되었다’며 개운해 한다. 사토-니슨 공동성명이 직간접적으로 안고 있는 위협과 배신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채 본토 일본인들은 오키나와에 대한 이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다. 반면 만국박람회 개최식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는 오키나와 현지 주민들의 표정은 어쩐지 우울해 보인다. 또 다른 채널에서는 램퍼트 고등판무관(James Benjamin Lampert, 오키나와의 행정 책임자) 부부와 점잖은 미군들이 무료한 얼굴로 오키나와 전통 소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비춘다. 그 모습은 흡사 “식민지의 어느 화창한 날의 풍경”을 연상케 한다. 『오키나와 노트』 가운데 제8장 「일본의 민중의식」의 내용을 거칠게 요약한 것이다.⁹⁾

나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예리하게 간파한 소설로는 앞서 언급한 오시로 다쓰히로의 『신의 섬』(「神島」, 『新潮』 1968.5.)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필자의 번역으로 한국에도 소개되었다(『오시로 다쓰히로 문학선집』, 글누림, 2016).

「합동위령제」 안에도 “자, 지금부터 저축해서 만박(万博)에 가자”(「합동 위령제」, p.87)라는 표어라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본토 취직이 확정된 ‘나’가 (본토의 비용으로) 만국박람회 견학을 위해 도쿄로 가기 전 오사카를 경유할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오키나와전투(‘집단지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나’의 포지션이다. ‘나’는 복잡하게 얽힌 기성 세대의 인식 혹은 ‘집단지결’을 경험한 이들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나’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웃어 보이라는 방송 관계자들이나 오사카 만국박람회에 오키나와 학생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려는 본토의 위정자들이나 모두 오키나와와 본토의 ‘새로운 교류’와 ‘친선’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제스처라는 것을 ‘나’는 선명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토와 오키나와 관계 속에서의 ‘나’의 포지션은 곧 작가 사키 류조의 포지션과도 겹쳐진다. 예컨대, 나하에서 새로 산 낱짜를 볼 수 있는 시계가 4월 27일에서 4월 28일로 넘어가는 것을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나’의 모습은 그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4월 28일이라는 날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날로, 오키나와의 입장에서 보면, 미 점령으로부터 독립한 본토와 달리 본토로부터 잘려나가 미군의 통치하에 그대로 남겨진 ‘굴욕의 날(屈辱の日)’이기 때문이다. 보통 ‘위령의 날’이라고 하면 오키나와 수비군사령관 우시즈마 미쓰루(牛島満)가 자결한 1945년 6월 23일을 ‘종전(終戦)’의 의미를 담아 ‘위령의 날(慰靈の日)’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 오고 있는데,¹⁰⁾ 사키 류조는 6월 23일이 아닌, 4월 28일 ‘굴욕의 날’을 ‘합동위령제’의 날로 삼음으로써 본토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한층 더 증폭시켜 보이고 있다. 또한, ‘집단지결’을 둘러싼 용어 문제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야마시타 이쿠오의 방식과 다른 의미에서 자각적이다. 사키 류조의 경우, ‘집단지결’의 의미를 섬 주민의 ‘자발’적인 결단이라며 군의 관여와 책임을 회피했던 구 수비

9) 大江健三郎, 『沖繩ノート』, 岩波新書, 2013, pp.182-201.

10) ‘종전’의 함의가 담긴 ‘8·15’만을 기억하고 기념해오고 있는 본토와 달리 오키나와에서는 ‘6·23 위령의 날’ ‘4·28 굴욕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 오고 있다. 참고로 ‘6·23 위령의 날’이 오키나와의 법정휴일로 정해진 것은 복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인 1962년부터라고 한다(福間良明, 『沖繩における「終戦の日」』, 川島真・貴志俊彦 編, 『資料で読む 世界の8月15日』, 山川出版, 2008, p.49).

대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집단지결’이라는 용어대신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옥쇄’ ‘옥쇄장(玉碎場)’이라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다. 이 용어를 둘러싼 문제는 전후 오키나와에 대한 본토의 태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은 이어서 논의할 소노 아야코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잘려나간 시간』

그렇다면, 소노 아야코는 ‘집단지결’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결론을 서두르자면, 소노 아야코의 『잘려나간 시간』은 이 두 작품과 다른 시각, 즉 일본 우파(그리고 구 일본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주목된다.

소노 아야코의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 정확히는 ‘집단지결’을 둘러싼 일 본군의 가해 책임을 둘러싼 문제의식은 1968년 여름부터 『주간 현대(週刊現代)』의 기획으로 오키나와 현지에 머물며 취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토와 오키나와 각지를 돌며 관련자를 만나고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수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베테랑 기자 네 명과 취재반을 꾸려 오키나와 현지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결과물은 『희생의 섬: 오키나와여학생의 기록(生贖の島: 沖縄女生徒の記録)』이라는 제목으로 1969년 4월 3일부터 7월 31일에 걸쳐 『주간 현대』에 연재되었으며, 이듬 해 70년 3월에 고단사(講談社)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내용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오키나와 전투에 간호부로 동원되었던 오키나와 6개 고등여학교 생존자들을 비롯하여 미국과 일본 양국의 관련자들 약 200여 명의 증언을 담고 있다. 도카시키템에서 있었던 집단자결을 취재하여 『어떤 신화의 배경: 오키나와·도카시키템의 집단자결(ある神話の背景: 沖縄・渡嘉敷島の集団自決)』이라는 제목으로 『제군!(諸君!)』에 연재하는 것은 1971년의 일이다.¹¹⁾

이 글에서 소노 아야코는, 오키나와 전기(戰記)를 대표하는 『철의 폭풍

11) 1971년 10월호부터 이듬 해 9월호까지 연재. 이후, 1973년에 문예춘추사(文藝春秋社)에서 『‘집단지결’의 진실(「集団自決」の眞実)』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鐵の暴風』(1950)에 수록된 증언과 기록이 현지를 취재하고 쓴 글이 아니라고 비판하여 집필자 중 하나인 오타 료하쿠(太田良博)와 논쟁이 불거진다.¹²⁾ 이에 오타는 바로 『류큐신보(琉球新報)』 지상에 반박문을 게재한다. 이후, 1985년 4월에 접화되어 오타의 비판, 소노의 반론, 오타의 재비판 형식으로 한 달여 간 계속된다.¹³⁾ 소노와 오타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즉 '집단지결'을 명령한 주체가 '일본군'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오타는 집단지결이 권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는 주장, 소노는 주민의 자발에 의한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어떤 신화의 배경』에서 소노가 주장하는 바의 진위 여부는 이토 히데미(伊藤秀美)의 『검증 어떤 신화의 배경(検証 ある神話の背景)』(紫峰出版, 2012)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단지결'과 '주민처형'에 관해 기술한 부분은 오키나와 민중의 전기를 완전히 배제한다든가 증언 및 인터뷰 대상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정황이 엿보인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05년 오에 겐자부로도 유사한 문제로 민사소송에 휘말리는데, 여기에도 소노의 주장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 1970년에 간행된 『오키나와 노트』(岩波新書)에 기술된 '집단지결'이라는 용어¹⁴⁾에 내재된 일본군의 강제성을 구 일본군과 유족 측이 문제 삼은

-
- 12) 소노는 『철의 폭풍』은 필자인 오타가 집단지결지인 도카시킴을 방문해 취재하지 않고, 직접 체험한 적 없는 단 두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화"라고 단언한다. 중요한 기록인 미군상륙 날짜(27일을 26일로)를 잘못 기재한 것은 그 하나의 예증이며, 이 '신화'로서의 『철의 폭풍』이 유족회의 『도카시킴 전투개요』를 거쳐 『도카시킴 전쟁 양상』으로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토 히데미의 『검증 어떤 신화의 배경』에 따르면 미군상륙 날짜가 26일 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진위가 어떠하든 정작 소노 자신이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는 『진중일지』 역시 여러 버전이 있어 검증이 필요한 자료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13) 소노 아야코는 감정을 앞세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최근 간행된 이토 히데미의 『검증 어떤 신화의 배경』(2012)은 소노의 주장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반박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14) 『오키나와 노트』에 '집단지결' '자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략) 그런데도 '국체호지(国体護持)'를 위해 오키나와 민중들을 희생시킨 태평양전쟁 막바지의, 그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오키나와전투의 비참함을 굳이 다른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 게라마(慶良間) 열도에서 벌어진 7백 명이 넘는 노약자들의 **집단지결**(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에 관해서는 우에치 가즈부미(上地一史)의 『오키나와 전쟁사(沖縄戦争史)』가 명확히 기술하고 있

것인데, 이때 유력한 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소노의 『어떤 신화의 배경』이었던 것이다.¹⁵⁾

지금부터 살펴볼 소설 『잘려나간 시간』은 『어떤 신화의 배경』을 연재하기 한 달 전인 1971년 9월에 중앙공론사에서 간행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잘려나간 시간』은 소설(픽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소노가 취재를 통해 수집한 증언, 인터뷰 기록물인 『어떤 신화의 배경』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은 「낙시꾼(釣師)」(1장), 「여자(女)」(2장), 「신부(神父)」(3장)로, 크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세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 20여 년 전 도카시키템에서 발생한 ‘집단자결’의 실태에 접근해 들어간다. 이들 세 명의 공통점은 도카시키템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자결’의 비극을 동시간적으로 경험한 자들이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는 바, 본토에서 온 일본인 군대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부대는 지금부터 미군에 맞서 장기전에 돌입한다. 따라서 주민은 부대의 행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부대에 식량을 제공하도록 깨끗이 **자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大江健三郎, 『沖繩ノート』, 岩波新書, 2013, p.69)

- 15) 아카마쓰 요시쓰구(赤松嘉次) 대대장 측 유족이 오에 겐자부로와 출판사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11년 일본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오에의 손을 들어주었다. 책이 간행된 지 무려 3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뜨겁게 점화된 이른바 ‘오키나와 집단자결 재판’은 집단자결을 둘러싼 논리가 어떻게 충돌하고 균열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오키나와 노트』에서 사용한 ‘집단자결’이라는 용어를 일본군의 책임을 명확히 한 ‘강제된 집단사(強制された集団死)’로 고쳐 부를 것을 제안한 데에서 한층 더 확고해진 오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입장을 일부러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오키나와 노트』에서 일본군, 오키나와의 제32군, 그리고 두 개의 섬 수비대가 그 수직구조, 7백 명에 가까운 도민에게 ‘집단자살’의 죽음을 강제한 ‘죄’를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집단자결’(강조는 원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나도 거기에 따라 진술서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증언에서 그 용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나는 오키나와에서 오랜 세월 논의해 온 여성들을 포함한 비전투원 도민들의 자살을 자결이라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의 쪽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 이후부터 나는 강제된 집단사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신(神)의 시집’에 선 것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비판했다. 이 전쟁범죄가 한 개인의 (그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岩波書店編, 『記録・沖繩「集団自決」裁判』, 岩波書店, 2012, p.11).

끊임없이 서로의 기억을 확인하고 상기시키는 장면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자들만이 갖는 강한 유대감을 읽어낼 수 있다. 먼저 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낚시꾼’은 본토 출신으로 오키나와전투 당시 일본군 병사로 도카시키템에 들어와 있었던 인물이다. 당시의 일본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여자’와 ‘신부’가 경험한 ‘집단지결’의 기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여자’는 ‘집단지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 대부분을 잃었고, 자신의 손으로 어린 두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현재는 민박집을 운영하며 홀로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신부’는 ‘낚시꾼’과 마찬가지로 본토 출신이며, 도카시키템에 포교를 위해 들어왔다가 전화에 휘말린다. ‘집단지결’을 결행했으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애원하는 이들과 마주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무엇보다 이 소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집단지결’을 도모했거나 목격한 이들의 고백이나 증언이 하나 같이 담담하다는 사실이다.

“우리 집은 미타케(御嶽) 아래에 있었어요. 큰어머니와 큰어머니 딸과 나를 제외한 6명이 모두 죽었죠.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남동생, 우리 딸 둘.”

“4월 1일, 바로 그날 밤이군요.”

“그래요, 그날 밤.”

“남편은요?”

“남편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렵은 자바에 있었어요. 돌아온 후 헤어졌어요. 예뻐하던 딸이 둘이나 죽었으니까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겠죠. 게다가, 그 딸 둘은 내가 죽었어요.”¹⁶⁾

자신의 손으로 어린 두 딸을 죽여야 했던 충격적인 상황을 고백하는 장면임에도 ‘여자’의 내면적 비통함이나 슬픔은 전혀 감지할 수 없다. 자바에서 귀국한 남편에게도 ‘여자’는 아무런 내면적 동요 없이 “내가 죽었어요.”라고 말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집단지결’의 순간을 더 없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묘사한다.

16) 曾野綾子, 『切りとられた時間』, 中央公論社, 1971; 『曾野綾子撰集 2』, 読売新聞社, 1976, p.389(이하, 본문에 페이지 수만 표기함).

“내 손으로 와카바(若葉)와 시오(潮)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입고 있던 몸뻐의 끈을 풀었어요. 그것을 와카바의 목에 감고는 끌어안았어요. 나는 꼬옥 끌어안았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 이래 이렇게 힘주어 끌어안은 적이 없었죠.”

“예뻐어요. 그 때가 와카바 생애 중 가장 예쁜 모습이었죠. 발버둥도 치지 않았어요. 나의 품 안에 조그맣고 가냘프게. 나는 와카바가 또 다시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듯했어요. (중략) 나는 와카바를 발아래에 뉘이고 마찬가지로 시오의 목에도 끈을 감았어요. 시오는 발버둥 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구역질을. 뜨거운 액체가 코에서 입으로 흘러나왔어요. 나는 보지 않았어요. [...]”(p.413)

또한, ‘집단지결’을 일본군 병사와 아내의 사이를 의심한 남편의 질투에서 비롯된 것으로 묘사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방위소집병이던 이시카와(石川)는 부대에서 나눠준 수류탄을 들고 부대를 이탈해 아내와 2남 2녀, 그리고 가족 이외의 노나미(野波)라고 하는 일본군 소위와 함께 ‘집단지결’을 결행한다. 결과적으로 이시카와 일가족은 전멸하고 노나미는 손목이 절단되는 부상만 입고 살아남게 된다. 일본군과 오키나와 주민이라는 조금 색다른 조합의 ‘집단지결’의 사례는 ‘뉘시꾼’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그런데……그것은(‘자결장’으로 불려낸 일-인용자) 이시카와의, 노나미 소위에 대한 가족적 친밀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 이시카와 일가의 자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몇 백분의 일의 확률이라고 해도—그것은 이시카와 방위소집병의, 노나미에 대한 복수의 살인미수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면 이시카와는 자기 일가의 목숨을 걸고 노나미의 희롱으로부터 아내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일지 모른다.(p.391)

‘집단지결’에 대한 다소 낯선 방식의 묘사는 이외에도 더 있다. ‘집단지결’이 군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주민의 자발에 의한 것인지를 둘러싼 문답이 오가는 장면이 그것이다.

“자, 먼저 손님께 질문하겠는데, 당신들 군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요?”
여자의 눈동자가 빛난다.

“무슨 명령?”

“자결하라는 명령”

낙시꾼은 소리를 낮춰 웃었다.

“군은 그럴 만큼, 당신들에게 친절하지 않을 걸요.”

여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낙시꾼을 바라본다.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의식 안에는 당신들 일 따
윈 전혀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 있는 게 좋
은지, 죽는 게 나은지도 모르는 판이었고.

[…]

민초(民草), 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는 곧 거뒀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날 섬 주민들은 그들에게는 잡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게요.(p.408)

“군의 명령으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었다, 라는 건가?”

“그런 면도 있지만.”

“있지만, 그래서 어쩐다는 거죠?”

“무리하게 죽은 것도, 기뻐하며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모두 훗
날 설명하기 위한 말에 불과하죠.”(p.417)

일본군이 섬 주민들에게 자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지를 묻는 ‘여자’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낙시꾼’은 ‘집단지결’ 명령을 내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도, 섬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한 것은 물론, “당신들”이라는 거듭된 표현에서 오키나와, 섬 주민과 일본, 일본군을 구분하려는 인식도 엿볼 수 있다.¹⁷⁾ “무리하게 죽은 것도, 기뻐하며 죽은 것도 아니”라는 두 번째 인용문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군의 논리와 민중의 논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이나, 앞서의 이시카와 일가나 여자, 신부의 사례에서 보듯, ‘집단지결’을 실행으로 옮긴 것도, 그 명령을 내린

17) 군의 명령이 아닌 섬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집단지결’ 사태가 발발한 것임을 유도하는 장면, 이를 테면, “자, 그럼 묻겠는데, 당신들 섬사람들은, 그 날, 무엇 하러 미타케에 올라간 겁니까?”(p.407)라며 ‘여자’를 추궁하는 장면에서도 “당신들”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것도, 그리고 ‘집단지결’을 피해 간 (실패한 경우 포함) 이에게 ‘비겁자’라는 낙인을 찍어 집단에서 배제해 간 것도 모두 오키나와 주민 자신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군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마에노 소토키치(前野外吉)는 이 소설의 해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고발’의 입장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복잡하고 미묘하여 심도 있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집단지결 문제를 내면과 신앙 문제로 전위시킨 작품”¹⁸⁾이라고 자리매김한다. 마에노의 지적을 새삼 빌릴 것도 없이, ‘집단지결’이라는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비극적 사태는 가해와 피해의 대립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일본(군)과 오키나와(주민) 내부의 차이와 차별을 노정하는 동시에, 그동안 암묵적으로만 존재해 오던 오키나와 내부의 불가항력적인 불신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오키나와 내부의 갈등, 분열 양상은 앞서의 사키 류조 소설 안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노 아야코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하나 같이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가해와 피해의 구도를 제대로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두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했던 복잡한 내면을 일체 드러내지 않았던 ‘여자’나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남시꾼’,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집단지결’의 비극을 특정 종교의 신앙심으로 수렴해 가는 ‘신부’ 등.

“죽여줘! 죽여 달라고! 아파, 아프다구! 신부님! 당신이라면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은 신부도 면식이 있는 마을 여자였다. 그녀는 머리와 함께 반쯤 찢겨진 귀를 어지럽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

신부는 칼 한 자루, 가래 한 자루 갖고 있지 않았다. 얼마 후 신부는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수류탄을 생각해 냈다.

그것은 분명 신부로 하여금 선명한 희생의 냄새를 풍기는 행위였다. 신부는 귀한 수통의 물을 건네듯, 육체적 고통의 해방을 약속하는 최후의 한 발 수류탄을 꺼내들려 했던 것이다. 수류탄을 잃는다고 생각하니 바로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반면, 빨간 칠을 한 것처럼 피범벅이 된 여자

18) 前野外吉, 「解説」, 『曾野綾子撰集 2』, 앞의 책, p.465.

를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

[…]

신부는 수류탄을 다시 주머니 속에 감췄다. 그리고 신부는 자신의 행위가 바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걸 알았다. (pp.440-441, 강조는 원문)

‘집단지결’에 실패한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애원하지만, 신부는 이를 거절한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종교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종교라는 색채를 걷어 내고 보면 신부 역시 ‘집단지결’의 가담(가해) 책임에서 벗어나는 위치에 자리한다. 이 때 신부가 본토 출신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III. ‘좋은 관여’ vs. ‘나쁜 관여’라는 우파의 (무)논리가 향하는 곳 : 결론을 대신하여

소노 아야코가 소설 『잘려나간 시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마에노 소토키치가 지적하듯 명확하다. 즉, “늘 오키나와는 옳고, 본토는 나쁘고, 본토를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곧 오키나와를 배반하는 것”이라거나, “오키나와를 아프게 한 아카마쓰(赤松) 부대 사람들 편에서 조금이라도 논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 그 자체를 배신으로 간주하고, 파쇼라고 생각하는 것”¹⁹⁾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극우 논객 소노 아야코는 이를 전후 일본의 “정형적(定型的)인 사고방식”²⁰⁾이라며 비판한다.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를 앞둔 민감한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의 ‘집단지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온 데에는 이렇듯 전쟁 책임, 전후 책임을 완전히 소거한 형태의 우파 중심, 본토 중심의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19) 前野外吉, 위의 책, p.464.

20) 前野外吉, 위의 책, p.464.

지금까지 살펴 본 본토 출신 작가들의 세 편의 소설과 ‘집단지결’ 관련 논쟁과 소송 등을 통해서도 몇몇 유의미한 논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한 가지만 언급하면, 소노 아야코의 소설에는 부재하고 아마시타 이쿠오의 소설에는 등장하는, 일본군, 오키나와 주민과 같은 시공간에 분명히 함께 했을 ‘조선인 군부’, ‘조선인’들의 존재이다. 아마시타 이쿠오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처한 극한 상황을 묘사하는 가운데 소설 첫 장면부터 ‘조선인 군부’를 배치한다. 주인공의 어린 딸이 먹다 남긴 고구마를 건네받을 힘도 없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조선인 군부’의 모습으로 말이다. 그런데 오키나와 출신 작가들로 시선을 돌려 보면, 오시로 다쓰히로,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栄喜), 메도루마 슌(目取真俊), 사키야마 다미(崎山多美) 등은 이른 시기부터 오키나와 내에 함께 존재했던 조선인, 타이완인, 중국인의 모습(주로 ‘군부’나 ‘위안부’)을 묘사해 왔다. ‘집단지결’로 상징되는 전후 오키나와 문제를 오로지 군의 명령 여부, 가해와 피해의 틀 안에 가둬버리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낸 것이 무논리로 일관해 온 우파의 유일한 논리라면 논리라고 하겠다. 소노 아야코와 쌍벽을 이루는 우파 논객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2008년 3월, ‘오키나와 집단자결 재판’에서 오에 겐자부로와 이와나미서점미 승소하자 바로 이듬해에 『오키나와전투 ‘집단지결’의 수수께끼와 진실(沖繩戦「集団自決」の謎と真実)』(PHP, 2009[공편])이라는 제목의 책을 서둘러 간행한다. “군 명령의 유무를 둘러싸고, 전사(戰史)의 심층에 파고든다!”라고 큰 글씨로 강조한 띠지가 이 책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그 가운데 소노 아야코와의 「대담 오키나와의 ‘비극’을 직시한다—역사와 문학의 틈새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끄는데, 대담 내용은 따로 거론할 필요도 없이, 『잘려나간 시간』에서 소노가 어떤 식으로 일본 우파(그리고 구 일본군)의 입장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변했는지는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잘려나간 시간』속 피해 당사자들인 오키나와인의 내면이 그토록 철저히 소거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소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하타가 비판하는 “나쁜 가해자와 옳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고발’의 논리”²¹⁾는 분명 우파의 공격이 향하는 대극에 있는 논리이지만, 거꾸로 우파의 (무)논

21) 前野外吉, 위의 책, p.484.

리로 회수되어 버릴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나쁜 가해자'와 '옳은 피해자'라는 단선적 이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지만 일본군이 '집단지결'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관여'와 '나쁜 관여'로 구분²²⁾해야 한다는 우파의 (무)논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철저히 비판하고 응시해야 할 것이다. '집단지결'의 폭력이 오키나와(인)에만 미쳤던 것이 아니라는 성찰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립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²³⁾라는 오시로 다쓰히로의 중층적이고 불안적인 사유가 그 어느 시기보다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2) 秦郁彦, 「集団自決問題の眞実同調圧力に屈した裁判所」, 『沖繩戦「集団自決」の謎と眞実』, 앞의 책, p.236.

23) 김재용, 「오시로 다쓰히로 소설가와의 대담」, 『지구적 세계문학』 제6호, 글누림, 2015, p.145.

■ 참고문헌

- 강성현, 「‘죽음’으로의 동원과 이에 대한 저항 가능성: 오키나와 ‘집단지결’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근식·주은우·김백영 편저, 『경계의 섬, 오키나와』, 논형, 2008.
- 김재용, 「오시로 다쓰히로 소설가와의 대담」, 『지구적 세계문학』 제6호, 2015.
- 손지연, 「전후 오키나와(인)의 성찰적 자기서사 『신의 섬』: ‘오키나와전투’를 사유하는 방식」, 『한림일본학』 27권, 2015.
- 伊藤秀美, 『検証 ある神話の背景』, 紫峰出版, 2012.
- 岩波書店 編, 『記録・沖縄「集団自決」裁判』, 岩波書店, 2012.
- 大江健三郎, 『沖縄ノート』, 岩波新書, 1970.
- 大城将保, 『争点・沖縄戦の記憶』, 社会評論社, 2002.
- 大城立裕, 「神島」, 『新潮』 1968.5. ; 『大城立裕全集9』, 勉誠出版, 2002.
- 曾野綾子, 『生贖の島: 沖縄女生徒の記録』, 講談社, 1970 ; 『曾野綾子撰集 2』, 読売新聞社, 1976.
- _____, 『切りとられた時間』, 中央公論社, 1971 ; 『曾野綾子撰集 2』, 読売新聞社, 1976.
- _____, 『ある神話の背景: 沖縄・渡嘉敷島の集団自決』, PHP文庫, 1971 ; 『曾野綾子撰集 2』, 読売新聞社, 1976.
- 佐木隆三, 「合同慰霊祭」, 『文藝』 1970年 6月号.
- 謝花直美, 『証言 沖縄「集団自決」: 慶良間諸島で何が起きたか』, 岩波書店, 2008.
- 秦郁彦 編, 『沖縄戦「集団自決」の謎と真実』, PHP, 2009.
- 福間良明, 「沖縄における「終戦の日」」, 川島真・貴志俊彦 編 『資料で読む世界の8月15日』 山川出版, 2008.
- 屋嘉比呷, 『友軍とガマ: 沖縄戦の記憶』, 社会評論社, 2008.
- _____, 『沖縄戦, 米軍占領史を学びなおす: 記憶をいかに継承するか』, 世織書房, 2009.
- 山下郁夫, 「渡嘉敷島」, 『作家』 1968年 9月号.

❖ ABSTRACT

The Complicated View of Mainland Japanese on the 'Mass Suicide' of Okinawa

Son, Jiyoun
Kyunghee University

This article chose a novel that deals with “mass suicide”, a subject that is bound to be uncomfortable for both mainland Japanese and native Okinawans.

Among them, the mainland writers, like Ikuo Yamashita, Ryuzo Saki, and Ayako Sono, will be focused on with their works, to see how they differ from Okinawa writers' expressions, and an in-depth look taken at the complex perceptions of mainlanders intertwined over the 'mass suicide' by referencing Reportage, as well as the progress of the 'Okinawa Trial of mass suicide' by Kenzaburo Oe, who represented conscientious intellectuals in mainland Japan, and by Ayako Sono, a far-rightist who came from the same mainland, but who showed stark differences in perception.

It will point out the absence of the 'Chosun Army' and the 'People of Chosun', who were absent in the novel by Ayako Sono, but obviously were around at that time, along with the Japanese Army and Okinawans that appear in novels by Okinawan writer Ikuo Yamashita. It will then critically lay out the non-logic of the right wing, which has locked the post-war Okinawa issue, symbolized by “mass suicid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ilitary's order, the framework of abuse and damage, and created a confrontation between mainland Japan and Okinawa.

Key Words : Okinawa, Mass suicide, Sono Ayako, Oe Genzaburou,
Yamashita Ikuo, Saki Ryujo

- 논문접수일 : 2019. 11. 10
- 심사완료일 : 2019. 12. 01
- 게재확정일 : 2019. 12. 03